

# 유.엔. 마주르(Ю.Н. Мазур)의 현대한국어 연구\*

—『한국어』와 『한국어 문법. 형태론. 조어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칼리나\*\*

## 〈차 례〉

1. 서론
2. 『한국어』와 『한국어 문법』의 비교
3. 결론

### [국문초록]

유리 니콜라예비치 마주르는 러시아의 한국어학자로, 1960년에 『한국어(Корейский язык)』를 출판하였고, 사후 2001년에 『한국어 문법. 형태론. 조어론(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орфология.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을 출판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위의 두 문법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 두 문법서에서 보여주는 한국어 문법 분석의 변화를 살펴 보고 현재의 한국어 학교문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두 문법서의 특징은 굴절어인 러시아어의 단어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단어를 품사와 보조어로 나누었다는 것이다. 품사의 분류는 조사를 제외한 현재의 한국어 학교문법에서의 품사와는 별 차이가 없다. 보조어에는 후치사, 접속사, 소사, 의존명사, 분류사, 보조 용언 등이 포함되는데 그 중 소사에는 부정부사, 비교격조사, 일부 의존명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어에서 격표지가 붙지 않는 형태로 격의 기능을 하는 것을 어간격으로 설정하였다. 용언 어간의 어미와 보조동사 등과의 결합에서 용언 어간을 둘 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또한 용언의 관형사형과 부사형에 대해서는 각각 형동사와 부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용언의 명사형에 대해서는 부정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명사형이라는 용어로 바꾸기도 하였다. 이 두 권의 한국어 문법서는 현재의 한국어 학교문법과는 달리 러시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 C2A02092184). 본 논문은 2022년 8월 19일에 개최한 2022 동아시아한국학 국제학술회의 세계 한국학 연구의 사상과 계보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아인 한국어학자의 한국어 문법 기술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한국어, 단어, 소사, 형동사, 부동사, 부정사

## 1. 서론

유리 니콜라예비치 마주르(Юрий Николаевич Мазур)(1924~1998)는 러시아의 한국어 학자로, 러시아의 한국어 이론 문법과 러시아의 한국어 사전 편찬에 평생을 바쳤다. 본고는 마주르의 저작 중, 1960년에 출판된 『한국어(Корейский язык)』와 사후 2001년에 출판된 『한국어 문법. 형태론. 조어론(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орфология.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 두 문법서에서 보여주는 한국어 문법 분석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의 한국어 학교문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1)</sup>

마주르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Московский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1921~1954) 극동학부 한국학과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였다. 이 연구소는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 하나이다. 그 역사는 라자레프 동양어학교(Лазаревское училище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가 개교한 1815년부터 시작된다. 라자레프 동양어학교는 아르메니아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주로 아르메니아어, 페르시아어, 오스만어, 그루지아어, 터키어, 아랍어 등 언어를 가르쳤다. 학교 명칭은 아르메니아연구소, 페르시아연구소, 살아있는 동양어중앙연구소 등으로 여러 번 변경하였는데 1921년 모스크바의 모든 동양학 연구 교육 기관이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로 합병되었다. 토르쿠노바(2014: 222-225)에 따르면 1922년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에는 근동 및 중동학부(Отделение Ближнего и Среднего Востока)와 극동학부(Отделен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가 있었다. 근동 및 중동학부에는

1) 이하 『한국어 문법. 형태론. 조어론』을 『한국어 문법』이라고 하겠다.

오스만어계, 페르시아어계, 아랍어계, 아르메니아어계, 그루지아어계가 있고 극동학부에는 중국어계와 일본어가 있었다. 중국어계에는 북부 중국어, 남부 중국어, 한국어와 몽골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토르쿠노바(2014:306)에 따르면 1930년대에 한국어 강좌가 있었으나 체계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2)</sup> 또한 1932년에는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 출판사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Учебник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도 있었다고 한다.<sup>3)</sup>

한국 해방 이후, 1945년 9월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 극동학부에서 모스크바 최초의 한국학과(корейское отделение)가 개설되었다. 처음에는 황동민(И.И. Хван)과 그의 아내인 에.엠. 최(Екатерина Михайловна Цой), 그리고 한득봉(Хан Дык Пон), 황윤준(В.А. Хван) 등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을 초청하였다. 황동민은 1945년부터 한국어와 한글, 한국사를 가르쳤고 한득봉은 1948년부터 한자와 어휘, 고대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쳤다. 황윤준은 1949년부터 현대한국어 음운체계와 성조 관련 강의를 하였고 타 학교에서 한국어 통사론 강의도 하였다.<sup>4)</sup> 에.엠. 최는 한국문학을 가르친 것으로 추정된다.<sup>5)</sup> 그 후 1949년부터는 마주르, 1950년부터는 뜨미트리예바 등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 한국학과의 첫 졸업생들이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연구소 교재는 홀로도비치 교수의 참여로 집필되어 1950년대 초반에야 등장하였다고 한다.

2) Торкунова, А.В. *Главы из истории московского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Лазаревский институт*

- *Московский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 МИУМО*. Под общ. ред. Академика РАН А.В. Торкунова.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Аспект Пресс», 2014. С.306.

3) 이 교재는 러시아 대학 한국학 문헌(Российский архив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го корееведения)에서 등록되어 있으나 열람할 수 없었다.

<http://www.rauk.ru/downloads/category/24-2011-04-03-03-35-35?start=40>

4) 황동민, 한득봉, 황윤준에 대하여 바닌(2004)을 참고하였다. Ванин, Ю.В. *Жизнь и труд посвятившие*

*Корею: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еведы 2-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 Сборник статей. Том 1. - Москва: Первое Марга, 2004, С.215-222, С.201-215, С.206-214.

5) 에.엠. 최의 학위논문인 『이기영 소설에서 나타나는 한인촌의 큰 변화 반영』(1955)을 보았을 때, 그는 한국문학을 가르친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이력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Цой, Екатерина Михайловна, Отражение великих перемен в корейской деревне в романах Ли Ги Ена: диссертация кандидата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Москва, 1955.

한국학과는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첫 입학생들은 3학년부터 북한으로 1년 동안 보내져서 고등교육기관의 소련 전문가를 위한 통역사로 일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이는 그들의 학술적 수준과 교수법의 성장에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1945년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에 한국학과가 개설되면서 소련에서는 한국학이 현대적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소련에서 한국학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의 졸업생들은 최초로 소련에서 인증하는 한국학 연구자들이 되었다. 소련과 한국의 수교가 이루어진 후, 소련의 한국학 연구자들은 한국의 대학에서 러시아어 강의도 하고 다양한 학술회의에서 한국학 관련 발표도 하였다.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 한국학과와 한국어학자로는 미주르가 대표적이다. 미주르 외에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에서 배출된 유명한 한국어문학자로는 『한국어. 실용 과정(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рактический курс)』 등 대학교 실용 한국어 교재를 집필한 뜨미트리예바(В.Н. Дмитриева),<sup>6)</sup>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문학의 신소설과 현대문학 전문가로서 러시아 최고의 한국문학 연구자 중 한 명인 이바노브나(В.И. Ивановна),<sup>7)</sup> 그리고 한글을 키릴 문자로 표기하는 콘체비치 시스템(система Концевича)의 창시자이자 러시아의 훈민정음 연구자로 잘 알려져 있는 콘체비치(Л.Р. Концевич)를 들 수 있다.<sup>8)</sup>

1954년 8월에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가 해산되면서 한국학과와 일부 교수들과 고학년 학생들은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연구소(Моск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нститу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로 전입되었고 그때 국제관계연구소에 동양학과가 설립되었다. 미주르는 모스크바 동

6) 뜨미트리예바(Валентина Николаевна Дмитриева, 1927~2011)는 1950년에 모스크바 동양학 연구소를 졸업하였고 1950년 12월부터 1954년 8월까지 같은 연구소에서 한국어를 가르쳤다. 1954년 9월 1일부터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연구소 동양학과로 전입되어 남은 인생을 이 연구소에서 보냈다.

7) 이바노브나는 미주르의 아내이다.

8) 콘체비치는 『한국 지명 사전』(1973), 『훈민정음』(1979), 『훈민정음의 세계』(2013)로 유명하다.

양학연구소에서 제1 모스크바 국립외국어대학교로 옮겨졌다가 모스크바 국립 대학교 동양언어연구소, 현재의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에 임용되었다.<sup>9)</sup>

마주르의 한국어 문법서 중에서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 것은 『한국어 문법』이다. 하지만 이 문법서의 한국어 문법을 분석하여 검토한 논의는 홍택규(2004)와 최지영(2016ㄱ, 2016ㄴ)에 불과하다. 홍택규(2004)는 『한국어 문법』에 대한 서평이고 최지영(2016ㄱ, 2016ㄴ)은 홀로도비치의 『한국어 문법 개요』(1954), 마주르의 『한국어 문법』과 같은 러시아인 한국어학자가 펴낸 2권의 책과 한국인 학자가 펴낸 3권의 책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품사의 분류와 한국어 문법 용어의 러시아어 대역어에 대한 사용 양상을 다룬 연구이다. 한편, 마주르의 『한국어』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 문법서를 검토한 논의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마주르가 1950년대 후반에는 북한과 교류하였고, 1990년대 초반에는 한국과 교류한 점을 볼 때, 마주르의 한국어 문법은 북한과 남한의 영향을 다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르는 러시아인으로서 러시아어 문법을 기반으로 한국어 문법을 바라보고 기술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한국어』와 『한국어 문법』의 비교

본고는 마주르의 『한국어』와 『한국어 문법』 두 권의 저작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어』는 1960년 모스크바 동방문화 출판사에서 발행된 책이고 소련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에서 기획한 총서인 『외국 동양 및 아프리카의 언어(Языки зарубежного востока и африки)』 중의 한 권이다. 이 책은 총 119면이며 서문, 한국어와 다른 언어와의 관계, 한국어와 방언, 한국 문자의 역사, 음성학과 서체, 어휘와 단어형성, 형태론, 통사론, 한국어

9) 유.엔. 마주르의 생애와 연구 업적에 대해서는 줄고(2022)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연구의 역사,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어 문법』은 마주르가 세상을 떠난 뒤, 콘체비치가 편집하고 2001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출판된 현대 한국어 이론 문법서이다. 이 책은 마주르가 70~80년대에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의 한국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총 330면이고 품사와 보조어, 형태론, 형태형성, 단어형성, 부록으로 구성되었다.<sup>10)</sup>

2장에서는 마주르의 한국어 문법 체계를 품사 체계, 체언의 문법, 용언의 문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sup>11)</sup>

### 1) 품사 체계

마주르의 품사 분류 방식은 현재 한국어 학교문법에서 제시한 분류 방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주르는 한국어의 단어를 굴절어인 러시아어의 단어 분류 기준으로 분류하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는 한국어의 단어를 자립성 유무에 따라 품사(части речи)와 보조어(служебные слова)로 나누었다.<sup>12)</sup> 품사의 분류는 조사를 제외한 현재의 한국어 학교문법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보조어는 한국어 학교문법의 보조사와 다른 개념으로 후치사, 접속사, 의존명사 등 보조적인 의미·기능을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어』에서는 품사를 명사류, 동사류, 부사, 보조어, 감탄사 5가지 무리로 분류하였는데 명사류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류에는 동사와 형용사, 부사에는 본래 부사, 양상어, 묘사어가 포함되었다. 보조어에는 후치사,

10) 형태형성은 넓은 개념으로는 명사의 격 변화, 형용사와 형동사 및 수사와 대명사의 성, 수, 격 변화, 동사의 성, 수, 인칭 변화를 지칭하는 단어 변화와, 명사의 성, 수의 형태형성,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 및 최상급의 형성, 형용사 단형, 동사의 시제, 법, 태의 형성, 형동사, 부동사, 미정형의 형성 등을 의미하는 형태형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조남신·박수빈, 『러시아어학 개론』, 한국문화사, 2017, 246쪽.

11) 출고(2022)에서는 마주르의 『한국어 문법 개요』(1954), 『한국어』(1960), 『한국어 문법. 형태론. 조어론』(2001)에서의 한국어의 품사 체계를 다룬 바 있다.

12) 보조어(служебные слова)는 보조적인 단어로 직역된다. 홍택규(2004)에서는 의존사, 최지영(2016), 조남신·박수빈(2017)과 표상용(2019)에서는 보조어로 번역하였다. 본고는 보조어로 하겠다.

접속사, 소사, 의존명사, 보조용언이 첨가되어 14품사로 설정되었다.<sup>13)</sup> 한편, 『한국어 문법』에서도 『한국어』에서처럼 단어를 품사와 보조어로 분류하였다.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동사, 관형사, 부사, 묘사어, 감탄사와 같이 9품사로 분류되었고 보조어는 후치사, 접속사, 의존명사, 분류사, 보조동사, 보조형용사, 연결사, 소사와 같이 8가지로 분류되었다. 『한국어』와 『한국어 문법』에서의 품사와 보조어 분류는 <표 1>과 같다.

<표 1> 마주르의 한국어 품사와 보조어 분류

| 품사(части речи)             | 『한국어』(1960)           | 『한국어 문법』(2001) |
|----------------------------|-----------------------|----------------|
| 명사(существительное)        | ○<br>명사류(имена)       | ○              |
| 대명사(местоимение)           |                       | ○              |
| 수사(числительное)           |                       | ○              |
| 동사(глагол)                 | ○<br>동사류(предикативы) | ○              |
| 형용사(прилагательное)        |                       | ○              |
| 관형사(атрибутив)             | ×                     | ○              |
| 부사(наречие)                | ○<br>부사(наречия)      | ○              |
| 양상어(модальное слово)       |                       | ×              |
| 묘사어(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слово) |                       | ○              |
| 감탄사(междометие)            | ○                     | ○              |
|                            | 9                     | 9              |

  

| 보조어(служебные слова) | 『한국어』(1960) | 『한국어 문법』(2001) |
|----------------------|-------------|----------------|
| 후치사(послелог)        | ○           | ○              |
| 접속사(союз)            | ○           | ○              |
| 소사(частица)          | ○           | ○              |
| 의존명사(служебное имя)  | ○           | ○              |
| 분류사(счетное слово)   | ×           | ○              |

13) 러시아어 문법에서 소사는 개별 단어나 문장 전체에 다양한 양상의 위양스를 더해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보조어이다. 표상용, 『현대 러시아어학 개론』(2판, 신아사, 2019, 103쪽.

|                                 |                             |   |
|---------------------------------|-----------------------------|---|
| 보조동사(служебный глагол)          | ○                           | ○ |
| 보조형용사(служебное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 보조용언(служебные предикативы) | ○ |
| 연결사(связка)                     | ×                           | ○ |
|                                 | 5                           | 8 |

〈표 1〉에서 보듯이 미주르의 『한국어』와 『한국어 문법』의 품사에는 공통적으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묘사어, 감탄사와 같은 8가지 품사가 설정되어 있다. 『한국어』에서는 관형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부사, 양상어, 묘사어를 하나의 품사인 부사로 묶었다.<sup>14)</sup> 『한국어 문법』에 와서는 양상어라는 품사가 사라지고 관형사가 등장한다.<sup>15)</sup> 보조어에는 공통적으로 후치사, 접속사, 소사, 의존명사, 보조용언이 설정되었다가 분류사, 연결사와 같은 보조어의 분류가 확대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연결사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이다’를 연결사로 부르고 있다.

미주르의 이와 같은 분류 방식은 러시아어 문법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러시아어의 품사 분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비노그라도프(B.B.

Виноградов)의 『Русский язык: Грамматическое учение о слове』(1947)에서는 단어를 독립어, 양상어, 보조어, 감탄사로 나누었다. 명사, 형용사, 수사, 대명사, 동사, 부사, 상태범주를 독립어에 포함시켰고 전치사, 접속사, 소사, 계사를 보조어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비노그라도프(1947)의 품사관이 러시아어 품사론의 근간이 되었는데 그 후 러시아 언어학자들에 의해 품사라는 용어는 차츰 보조어, 양상어, 간투사 등 모든 어군에 적용되기 시작했다.<sup>16)</sup> 현대 러시아어에는 10개의 품사가 있다. 우선 자립어, 보조어, 간투사로 나누어지고, 자립어는 변화사와 불변화사로, 변화사에는 곡용을 하는 명사, 형용사, 수사, 대명사와 활용을 하는 동사가 있다. 불변화사에는 부사

14) 미주르의 양상어는 현재의 한국어 한국문법 중 ‘아마, 반드시, 과연, 물론, 결코, 어서, 제발’ 등 양태부사에 해당되고 묘사어는 의성의태어에 해당된다.

15) 『한국어 문법』, 70쪽에 있는 각주에 따르면 미주르는 1973년 평양에서 출판된 『문화어 학습 참고서』를 참고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북한 조선어문법의 영향을 받아 관형사를 설정하였다.

16) 임홍수,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품사 대조』, 『국제문화연구』 제1-2집,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2008, 274쪽.



가 있다. 보조어에는 전치사, 접속사, 소사가 있다.<sup>17)</sup> 러시아어의 품사 분류에 적용되는 이러한 특징들은 마주르의 한국어 품사 체계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졸고(2022)에서는 마주르의 한국어 품사 체계를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여기서는 졸고(2022)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동사와 형용사, 후치사, 소사에 대한 일부 내용을 살펴보겠다.

### (1) 동사와 형용사

한국어의 형용사는 유럽어나 만주·통구스어 등 명사성 형용사를 가진 언어들과는 달리 동사와 비슷한 활용 양상을 보인다. 람스테트(1936)는 형용사를 동사의 하위부류인 성질동사로 분류하였다. 그 예로는 ‘말이 푸르다; 호랑이가 무섭다; 그가 말이다; 이가 나무다.’처럼 ‘푸르다, 무섭다’, 그리고 ‘이다’와 결합한 ‘말이다, 나무다’를 들었다.<sup>18)</sup> 마틴 외(1967)나 마틴 외(1969)는 형용사를 연속동사와 묘사동사로 분류하였다.<sup>19)</sup> 그러나 홀로도비치(1954)에서는 형용사를 하나의 품사로 독립시켰는데 형용사에 명령형, 청유형 종결어미가 결합할 수 없고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할 수 없거나 관형사형 어미 ‘은’은 동사에서는 과거를 나타내지만 형용사에서는 현재를 나타낸다는 등 이유를 들고 있다.<sup>20)</sup>

마주르는 홀로도비치(1954)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를 동사와는 별개의 품사로 설정하였다. 『한국어 문법』에서는 형용사의 기능을 11가지 나열하였는데 이들은 형용사를 독립시킨 이유가 될 수 있다.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형용사는 1) 문장에서 종결 서술어와 비종결 서술어, 한정어(관형사형), 명사형 등

17) 표상용, 앞의 책, 95~96쪽.

18) Рамстедт Г.,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Перевод с английского и примечания А. А. Холодовича),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иностр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51, С.85.

19) Мазур, Ю.Н.,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Морфология,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 Теоретический курс*. М.: Международный центр корееведения МГУ –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Муравей-Гай д», 2001, С.68.

20) 김태우, 「A.A. 홀로도비치의 현대한국어 연구 -『한국어 문법: 제1부 형태론』과 『한국어 문법 개요』의 비교 연구-」, 『한국학연구』 5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277쪽.

으로 나타날 수 있다; 2) 형용사 활용 패러다임을 가진다; 3) 현재시제의 종결어미 ‘-ㄴ다, -는다’와 관형사형 어미 ‘-는’,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 ‘-려(고)’, 행위의 지속을 나타내는 ‘-고 있다, -아 있다’와 결합할 수 없다; 4) 명령형과 청유형 종결어미가 결합할 수 없다; 5) 강조/감탄을 나타내는 명령형 어미 ‘-아/어/여라’와 결합할 수 있다; 6) 자동성과 타동성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7) 동작 양상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와 결합할 수 없다.

한편, 홀로도비치(1954)와는 달리 마주르는 ‘-적’, ‘-의’와 결합한 것들을 형용사로 보지 않았다.<sup>21)</sup> 『한국어』에서는 ‘과학적’과 같은 단어들을 명사의 한정적 어간(определятельная основа существительны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접미사 ‘-적’과 결합한 단어들이 러시아어에서 형용사로 번역되기 때문이다.<sup>22)</sup> 『한국어 문법』에서는 ‘국영, 유일’과 같은  $\emptyset$ 형식의 것, ‘불후의’와 같이 속격의 ‘-의’와 결합한 것, ‘역사상; 여행용’과 같이 접미사 ‘-상’이나 ‘-용’과 결합한 것, ‘구체적’과 같이 ‘-적’과 결합한 것들을 한정적 용법의 명사(существительные атрибутивного употребления)로 보았다.<sup>23)</sup>

## (2) 후치사

마주르는 람스테트(1939)나 홀로도비치(1954)에서 제시한 것처럼 기능과 의미 면에서 서구어의 전치사와 대응되는 표현들을 후치사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의 후치사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ㄱ. 후치사는 주로 명사와 다른 품사와의 통사적 관계를 표현한다.
- ㄴ. 후치사는 종종 격 형태와 함께 공간, 시간, 인과 등의 관계를 지정하는 데 사용된다.
- ㄷ. 후치사는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21) 마주르(1960:79)는 이전의 연구에서는 동사와 문법적 성질이 가까운 서술성 형용사와 접미사 ‘-적’과 결합한 명사성 형용사를 형용사로 분류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22) Мазур, Ю.Н.,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ерия Языки зарубежного Востока и Африки,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60, С.55-56.

23) Мазур, Ю.Н., 앞의 책, 2001, С.53-55.

어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 ㄹ. 후치사는 통사적 관계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지만 그 자체로 문장 성분이 되지 못한다.
- ㅁ. 후치사에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동사와 명사에서 유래한 것도 있고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닌 단어를 포함한 동사와 명사에서 유래한 것도 있다.
- ㅂ. 일부 후치사(명사에서 유래한 후치사)는 특정된 조건 하에서 선행명사가 없이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

아래는 마주르의 한국어 후치사 분류와 목록이다.

〈표 2〉 마주르의 한국어 후치사 분류와 목록

| 분류           |                   | 『한국어』(1960), 『한국어 문법』(2001) |  |   |
|--------------|-------------------|-----------------------------|--|---|
| 명사에서 유래한 후치사 |                   | 고유어 후치사                     | 앞, 뒤, 위, 아래, 밑, 안, 속, 밖, 가운데                   |   |
|              |                   | 한자어 후치사                     | 전(前), 후(後), 상(上), 하(下), 내(內), 외(外), 중(中), 간(間) |   |
| 동사에서 유래한 후치사 | ① 동사나 명사 앞에 쓰이는 것 | 대격 ‘-을/를’                   | 위하여(위한), 통하여(통한), 향하여(향한), 걸쳐(걸친)              | 위하여(위해, 위해서, 위한); 통하여(통해, 통해서, 통한), 향하여, 비롯하여, 위시하여, 막론하고, 걸쳐, 무릅쓰고, 물론하고, 불문하고 |
|              |                   | 여격 ‘-에’                     | 대하여(대한), 관하여(관한), 의하여(의한), 제하여(제한)             | 대하여(대해, 대해서, 대한), 관하여, 의하여, 걸쳐(걸쳐서, 걸친), 비하여, 이르러, 이르기까지, (에도) 불구하고             |
|              |                   | 도구격 ‘-로’                    | 인하여(인한)  | 인하여(인해, 인해서, 인한)  |
|              | ② 동사 앞에만 쓰이는 것    | 여격 ‘-에’                     | 있어서  | 있어서, 따라   |
|              |                   | 도구격 ‘-로’                    | 말미암아, 보아                                       | 말미암아, 보아  |
|              |                   | 공동격 ‘-와/과’                  | 더불어, 아울러                                       | 더불어, 아울러  |

〈표 2〉에서 보듯이, 마주르의 후치사는 명사에서 유래한 후치사와 동사에서 유래한 후치사로 분류되어 있다. 명사에서 유래한 후치사는 고유어 후치사와 한자어 후치사로 나누어진다. 고유어 후치사는 공간 관계를 표현하는

데에 쓰이고 한자어 후치사는 시간 관계를 표현하는 데에 쓰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사가 관형사형과 부사형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사에서 유래한 후치사를 두 부류로 나누었다. 첫째 부류는 ‘위한, 통한’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 ‘-ㄴ’과 결합한 것이 명사 앞에 쓰이는 후치사(‘나를 위한 선물’)와 ‘위하여(서), 통하여(서)’와 같이 부사형 어미 ‘여(서)’와 결합한 것이 동사 앞에 쓰이는 후치사(‘건강을 위해 운동한다.’)이다. 둘째 부류는 ‘있어, 따라’와 같이 동사 앞에만 쓰이는 후치사이다. 그리고 후치사를 선행명사의 곡용과 관련지어 나누기도 하였다.

‘앞, 위, 전(前), 후(後)’나 ‘위하다, 대하다, 의하다’ 등과 같은 후치사들은 현재의 한국어 학교문법에서의 의존명사와 활용의 불완전성을 보이는 불완전동사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후치사로 설정된 것들은 러시아어 등 서구어의 전치사에 대응되는 것들로 서구에서 오래전부터 후치사로 다루어 왔다.<sup>24)</sup>

### (3) 소사

마주르의 한국어 문법 기술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소사의 설정이다. 러시아어 문법에서 소사(частица, 小詞)는 개별 단어나 문장 전체에 다양한 양상의 뉘앙스를 더해 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보조어이다.<sup>25)</sup> 러시아인 한국어학자 홀로도비치(1954)뿐 아니라 마주르도 한국어에 소사라는 품사를 설정하였다.<sup>26)</sup> 홀로도비치(1954)에서의 소사에는 한정소사 ‘만, 뿐, 따름, 다

24) 마주르의 『한국어 문법 개요』(1954)에서 제시된 후치사 목록은 홀로도비치(1954)에서의 후치사 목록과 유사하다. 본고의 〈표 2〉에서 제시된 후치사 외에 『한국어 문법 개요』(1954)에는 ‘까지, 부터, 한테, 더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후치접사(послелоги-аффиксы)로 명명하였다.

25) 표상용, 앞의 책, 103쪽.

26) 러시아어의 소사에는 의문소사 ‘неужели(과연 그런가), разве(정말로 …일까), ли(ль)(-ㄴ가)’, 감탄소사 ‘что за(어뻐), как(어쩌면)’, 지시소사 ‘вот(바로 그, 저), вон(바로)’, 강조소사 ‘даже(도, 까지(도),조차), ведь(…이 아닌가), -то(-ㄴ가), все-таки(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же(은/는, 그러나, 도대체)’, 부정소사 ‘не, ни(아니)’, 그 외에 ‘только(…만 하면 좋을텐데), лишь(다만, -자마자), почти(거의), едва ли(아마 …아니하다), вряд ли(아마 …않다), точно(그렇다, 옳다), чуть не(하마터면, 거의), будто(마치 …처럼, 정말일까)’ 등이 포함된다. 러시아어의 소사는 ‘пусть(하게 내버려 두라, 하게 하라; 명령법)’, ‘бы(조건법)’ 등의 첨가로 동사의 서법을 만들거나 ‘более(더욱, 보다 더), менее(더 적은), самый(가장)’ 등의 첨가로 동사와 부사의 비

만, 뿐더러, 선택소사 ‘나/이나, 든지/이든지’, 첨가소사 ‘도, 조차, 까지’, 강조소사 ‘야말로, 도, 는/은’, 부정소사 ‘아니, 못’, 근사소사 ‘나/이나, 쯤’, 비교소사 ‘처럼, 같이, 만큼, 만, 커녕’ 등 현재의 한국어 학교문법에서 보조사, 부사, 부사격조사, 의존명사로 분류되는 것들이 섞여 있다. 한편, 마주르의 『로조사전』(1954)에 수록된 『현대 한국어 문법 개요』에도 소사 분류와 목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홀로도비치(1954)의 내용과 유사하다. 『현대 한국어 문법 개요』에서 제시한 소사에는 강조소사 ‘는/은’, 첨가소사 ‘도, 조차, 마다, 서건’, 한정소사 ‘만’, 선택소사 ‘나/이나, 든지/이든지’, 비교소사 ‘처럼, 같이, 마냥, 만’, 기타 소사 ‘따름, 뿐, 분더러, 대로, 만큼, 듯, 등, 번, 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발간된 마주르의 문법서에서는 소사의 분류가 간단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 목록도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마주르의 한국어 소사 분류와 목록을 살펴보자. 『한국어』에서는 부정소사(отрицательные частицы), 비교소사(сравнительные частицы), 형동사 후치 소사(послепричастные частицы)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고 『한국어 문법』에서는 부정소사와 형동사 후치 소사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마주르가 설정한 한국어의 소사 분류와 목록은 아래와 같다.

〈표 3〉 마주르의 한국어의 소사 분류와 목록

| 분류        | 『한국어』(1960)                                 | 『한국어 문법』(2001)                             |
|-----------|---|--|
| 부정소사      | 아니, 못                                       | 아니(안), 못                                   |
| 비교소사      | 보다  | ×  |
| 형동사 후치 소사 | 따름, 뿐, 뿐더러, 듯, 상, 만, 만큼, 겹, 대로, 등, 번, 지, 채로 | 따름, 뿐, 듯, 상, 만, 만큼, 겹, 대로, 등, 번, 27) 지, 채로 |

교급을 형성하거나 ‘кто-то(누군가), какой-нибудь(어떤, 무슨)’ 등의 첨가로 부정대명사(한정사)를 형성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이희숙 역, 『러시아어 문법』, 경진문화사, 2002, 152~154쪽.  
 27) 『한국어 문법』에서 ‘듯, 상, 만’은 보조형용사 ‘하다, 싫다’와 결합하여 쓰이고 ‘번’은 ‘번하였다’와 같이 보조동사 ‘하다’의 과거형과 결합하여 쓰인다. 한편, ‘듯, 상, 만, 번’에 대한 『한국어』의 설명은 『한국어 문법』의 설명과 같으나 ‘하다, 싫다’를 보조용언이라고 한 점은 다르다. 이 두 책에서는 각각의 예를 들지 않았지만 『로조사전』(1954)에 수록된 『현대 한국어 문법 개요』에서는 ‘번’의 예로 ‘넘어질번하다’를 들고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미주르가 제시한 한국어의 조사 목록에는 현재 한국어 학교문법에서의 부정부사 ‘안, 못’, 비교격조사 ‘보다’,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쓰이는 의존명사 ‘따름, 뿐, 듯, 만, 만큼, 겹, 대로, 체’ 등 자립성이 없는 것들이 소사에 포함되어 있다. 행동사 후치 소사는 일반적으로 앞에는 용언의 관형사형이 오고 뒤에는 ‘하다, 싶다, 말다’와 같은 보조동사가 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분류를 따르면 현재의 한국어 학교문법에서 의존명사로 분류되는 ‘것, 리, 바, 수, 줄, 척’ 등도 충분히 행동사 후치 소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미주르는 이들을 소사로 분류하지 않고 보조어의 하위분류인 의존명사에 포함시켰다. 미주르의 의존명사는 자립명사적 기능이 없고 관형어의 수식 없이 문장에서 쓰일 수 없으며 격조사와의 결합 가능 여부, 대용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미주르의 소사에는 부정부사, 비교격조사, 일부 의존명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의 한국어 학교문법에서 보조사로 분류되는 ‘까지, (이)나, (이)나마, 대로, 도, 마저, 만, 부터, (이)야, (이)야말로, 은/는, 조차’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과 관련하여 『한국어』는 체언의 문법범주 중 개선 범주(категория уточнения)에서 다루고 있고 『한국어 문법』은 명사의 형태형성(формообразование имен)에서의 격 형태 변형소인 접어-변형소(клитики-модификаторы)에서 다루고 있다.

한편, 미주르는 한국어의 조사를 별도의 품사로 설정하지 않았다. 조사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명사의 형태형성에 포함되어 있다. 명사의 형태형성에는 유정성-무정성 범주, 격 범주, 합성격, 유사 격 형성소, 격 형태 변형소가 있다. 그 중에서 격 범주는 현재 한국어 학교문법에서의 격조사에 해당되고 유사 격 형성소는 격조사들의 문체에 따른 변형소를 가리킨다.<sup>28)</sup> 격 형태 변형

28) 유사 격 형성소에는 주격의 유사 격 형성소 ‘-께서, -께옵서’, 제시 형태 ‘-란/-이란’, 여격의 유사 격 형성소 ‘-한테, -더러, -께’, 처격의 유사 격 형성소 ‘-에게서/-께서’, 도구격의 격 형성소 ‘-로써’, 공동격의 격 형성소 ‘-하고, -랑/-이랑’이 포함된다. Мазур, Ю.Н., 앞의 책, 2001, С.109-111.

소(модификации падежных форм)는 어떤 부가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것들로 ‘는/은, 야/이야, 야말로/이야말로, 라야/이러야, 커녕, 도, 조차, 마저, 마다, 보다, 처럼, 마냥, 만큼, 만, 부터, 까지, 나/이나, 라도/이라도’ 등 한국어 학교문법에서 보조사로 분류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주르는 이들을 접어-변형소(접사-소사)라고 명명하고 있다.

마주르는 처음에는 홀로도비치(1954)의 소사와 유사한 기술을 보이다가 『한국어』 이후부터는 아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형을 유지하고 있다. 즉 부정소사와 비교소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어 문법에서의 부정소사와 비교소사와 일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한국어 학교문법에서 의존명사로 분류되는 것들이 일부는 형동사 후치 소사에 분류되고 일부는 의존명사에 분류되었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

## 2) 체언의 문법

### (1) 격 체계

한국어의 격(case)은 이익섭·채완(1999:160-194)과 같이 주격, 대격, 속격, 처격, 구격, 공동격, 비교격, 호격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고영근·구분관(2018:151-154)과 같이 주격, 속격, 대격, 부사격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부사격은 다시 처소를 나타내는 ‘에, 에서, 에게’, 재료나 도구, 원인이나 이유, 방향 등을 나타내는 ‘(으)로, (으)로써, (으)로서’, 동반의 ‘과/와, 하고, (이)랑’ 등 의미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한국어의 격 범주(категория падежа)와 관련하여 『한국어』에서는 체언의 문법범주에서 다루고 있고 『한국어 문법』에서는 체언의 형태형성에서 다루고 있다. 이 두 문법서에서의 격 체계는 어간격(основной падеж)을 제외하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마주르의 한국어의 격 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 마주르의 한국어 격 체계

| 분류                | 『한국어』(1960) |      | 『한국어 문법』(2001)                    |              |
|-------------------|-------------|------|-----------------------------------|--------------|
|                   | 제1공용        | 제2공용 | 격 형성소                             | 문체적 변이형      |
| 어간격(основной)     | ∅           | ∅    | ×                                 |              |
| 주격(именительный)  | -가          | -이   | -가/-이                             | -께서          |
| 속격(родительный)   | -의          | -의   | -의                                |              |
| 대격(винительный)   | -를          | -을   | -를(축약형 ‘-르’)/-을                   |              |
| 여격(дательный)     | -에          | -에   | -에, -에게(축약형 ‘-게’)                 | -께, -한테, -더러 |
|                   | -에게         | -에게  |                                   |              |
| 처격(местный)       | -에서         | -에서  | -에서(축약형 ‘-서’);<br>-에게서(축약형 ‘-게서’) | -께서          |
| 도구격(творительный) | -로          | -으로  | -로/-으로; -로서/-으로서                  | -로써/-으로써     |
| 공동격(совместный)   | -와          | -과   | -과/-와                             | -하고, -랑      |
| 호격(звательный)    | -야          | -아   | -야/-아; -여/이여                      | -이시여         |

〈표 4〉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는 한국어의 격 체계를 어간격을 포함하여 주격, 속격, 대격, 여격, 처격, 도구격, 공동격, 호격 9가지로 나누었다. 또 명사가 모음으로 끝나느냐 자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제1공용, 제2공용과 같이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격에 대해서는 무정명사와 유정명사에 따라 각각 ‘-에’와 ‘-에게’로 나누었다.

러시아어, 몽골어, 만주·통구스어 등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주격 표지가 ∅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한국어는 이 언어들과 달리 주격 표지가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러시아인 한국어학 연구자 홀로도비치(1954:54)와 마찬가지로 마주르(1960)도 이러한 한국어의 특징을 고려하여 격표지가 붙지 않는 ∅형을 어간격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어간격과 관련하여 마주르는 아래와 같이 러시아어의 주격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에서 명사의 어간은 독립적인 단어의 의미를 가지며 형태형성 접사(формообразующие аффиксы) 없이 문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를 우



리는 어간격(основной падеж)이라고 하겠다. 러시아어에서 주격이 명사의 사전형(словарная форма)을 사용하듯이 한국어에서는 어간격이 명사의 사전형으로 사용된다.”(『한국어』:50-52)

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어의 주격 표지는 ∅이고 명사가 어형 변화를 하지 않는 것처럼 마주르가 설정한 한국어의 어간격은 명사 뒤에 격 표지가 붙지 않는 형태를 의미한다. 또 어간격의 기능으로는 주어(‘사람 간다’), 술어(‘사람이다’), 정어(‘사람 목소리’), 직접 보어(‘사람 본다’), 간접 보어(‘사람 준다’), 호사(呼詞, обращение)(‘동무!’), 상황어(‘서울 간다’) 등을 들고 있다.<sup>29)</sup> 한편, 러시아어의 주격은 주어, 술어, 호사 3가지 기능(표상용, 2019:121)이 있는데 마주르가 제시한 어간격의 기능은 러시아어의 주격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마주르는 러시아어의 주격이 가지는 형태와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격 체계에 어간격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국어 문법』에서는 『한국어』의 격 체계보다 더 체계적인 격 체계를 보여준다. 우선, 『한국어 문법』에서는 격 체계를 주격, 속격, 대격, 여격, 처격, 도구격, 공동격, 호격 8가지로 나누었다. 『한국어』와 달리 제1공용과 제2공용으로 나누지 않고 어간격을 설정하지 않았다. 『한국어』보다 발전된 것은 격표지의 축약형과 문체적 변이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축약형으로는 ‘-를’의 축약형 ‘-르’, ‘-에게’의 축약형 ‘-게’, ‘-에서’의 축약형 ‘-서’, ‘-에게서’의 축약형 ‘-게서’를 제시하였고<sup>30)</sup> 문체적 변이형으로는 존칭 명사와 결합하여 쓰이는 주격의 ‘-께서’, 여격의 ‘-께’를 제시하였으며 처격의 ‘-께서’,<sup>31)</sup> 정중함을 나타내는 호격의 ‘-이시여’를 제시하였다. 또 구어체에서 쓰이는 여격의 ‘-한테, -더러’, 공동격의 ‘-하고, -랑’을 제시하였

29) 호사는 고대 러시아어의 호격이 소멸됨에 따라 주격이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한다. 표상용, 앞의 책, 121쪽.

30) 『한국어 문법』에서는 ‘-에게’와 ‘-에게서’의 축약형을 각각 ‘-게(-ке)’와 ‘-게서(-кесó)’로 전사하였다.

31) 존칭 명사 뒤에 처격의 변이형 ‘-께서’의 예로 ‘이게 어머니께서 온 편지요?’를 제시하였다.

다.<sup>32)</sup> 그밖에 도구격의 문체적 변이형으로 ‘-로써/-으로써’를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어』와 『한국어 문법』에서는 ‘-에-를, -에게-서, -에서-와, -에서-의, -와-의’와 같은 둘 이상의 격조사끼리의 결합 양상을 합성격(составные падежи)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어 학교문법에서는 ‘-로부터’와 같이 통시적인 변화에 의해 하나의 단위로 굳어진 것을 합성격이라고 말하는데 미주르의 합성격은 조사연속구성체에 해당된다.<sup>33)</sup>

## (2) 복수형

한국어의 복수 범주와 관련하여 이 두 권의 문법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접미사 ‘-들’을 들고 있다. ‘-들’이 명사와 결합하여 복수를 나타낸다는 것과 명사 이외의 품사에 붙어 주어와 복수임을 나타낸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어』에서는 ‘잘들, 공부들’과 같은 부사나 서술성 명사와 결합하는 ‘-들’을 행위 주체(заметитель субъекта действия)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 문법』에서는 ‘-들이 부사(‘잘들’), 대명사(‘어디로들’), 명사-보어(‘안녕들 하오!’)와 같이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결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미주르는 『한국어 문법』에 와서 복수 범주를 문법적 복수와 어휘적 복수로 나누게 된다. 문법적 복수에는 ‘-들’과 ‘-네’가 존재하고 ‘-들’에 대한 설명은 『한국어』에서의 ‘-들’과 거의 같다. ‘-네’를 대표적 복수(репрезентативное множественное число)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접미사와 결합한 사람(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인칭대명사)이 특정 집단에 속하면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자임을 나타낸다고 한다. 예로는 ‘우리네, 부인네, 순옥이네’를 들고 있다. 한편, 미주르는 ‘우리네들, 우리들네’와 같이 ‘-들’과 ‘-네’가 연속으로 쓰일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어휘적 복수는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섯, 여러, 많은’과 같은 수사나 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를 들고 있다. 또 어휘적 복수의 예로 ‘사람사람, 집집’과 같은 명사의 반복

32) 미주르(1954)에서는 ‘한테, 더러’를 후치접사로 보았고 ‘하고, 랑’을 접속사로 보았다.

33)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개정판), 집문당, 2018, 162~163쪽.

형을 배분적 복수(разделительное множественное число)라고 보고 있다. ‘사람사람’을 ‘사람마다, 사람들’, ‘집집’을 ‘집마다, 집들’로 번역하였다. 그 외에 ‘제국가, 각신문’에서의 한자어 접두사 ‘제-, 각-’도 복수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 3) 용언의 문법

#### (1) 어간 유형

마주르는 한국어 용언의 사전형(словарная форма, =기본형)을 용언 어근(어간)과 어미 ‘-다’의 결합으로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는 현재의 한국어 학교문법에서의 사전형과 같다. 그러나 용언의 활용, 복합동사 구성이나 보조동사 구성 등 다양한 기능적 형태를 형성하는 것을 기술할 때는 현재의 한국어 학교문법에서 기술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는 용언의 어근(어간)에 연결형태소(соединительная морфема)가 결합한 결과를 어간이라고 부르고 있다. 마주르가 설정한 어간 유형은 아래와 같다.

〈표 5〉 마주르의 어간 유형

| 유형   | 『한국어』(1960)    |             | 『한국어 문법』(2001) |             | 어미, 보조용언 등과의 결합                      |
|------|----------------|-------------|----------------|-------------|--------------------------------------|
|      | 용언 어근          | 어간 형성 형태소   | 용언 어근          | 어간 형성 형태소   |                                      |
| 제1어간 | 받-<br>주-<br>하- | ∅           | 받-<br>주-<br>하- | ∅           | -겠-                                  |
| 제2어간 | 받-<br>주-<br>하- | 아<br>어<br>여 | 받-<br>주-<br>하- | 아<br>어<br>여 | -도, -서, -아, -쓰-<br>지다, 하다<br>버리다, 있다 |
| 제3어간 |                | ×           | 받-<br>주-<br>하- | 지           | 않다<br>못하다<br>말다                      |

〈표 5〉에서 보듯이 마주르가 『한국어』와 『한국어 문법』에서 설정한 제1어간과 제2어간은 같다. 제1어간은 ‘받다, 주다, 하다’ 등 용언의 사전형에서

어미 ‘-다’가 삭제된 형태, 즉 ‘받-, 주-, 하-’와 같은 어근의 형태를 말한다. 제2어간은 용언 어근 또는 제1어간에 ‘아/어/여’가 결합하는 형식이다. 다시 말하면 제1어간 ‘받-, 주-, 하-’에 ‘아/어/여’가 결합하면 제2어간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아/어/여’를 『한국어』에서는 제2어간 접미사(суффикс второй основы)라고 부르고 『한국어 문법』에서는 모음조화 접사(гармонирующий аффикс)라고 부른다.<sup>34)</sup> 『한국어 문법』에서는 제2어간의 몇 가지 용법을 들고 있다. 첫째 용법은 ‘들어-가다, 흘러-들어-가다’와 같이 2개 또는 3개의 요소로 복합동사를 구성할 때, 둘째 용법은 의미 동사(주동사)의 제2어간에 보조동사가 결합되어 동사의 문법적 상 형태를 구성할 때(주동사+보조동사), 셋째 용법은 ‘높아-지다, 기뻐-하다’와 같이 형용사에서 동사를 구성할 때 제2어간을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up>35)</sup> 『한국어』에서는 어간 유형의 용법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일부 접미사, 어미, 보조동사, 상을 나타내는 동사의 용법에서 어떤 어간 유형과 결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미래시제의 ‘-겠-’은 제1어간 뒤에 결합하고 부동사형 어미 ‘-어도’는 ‘깊어-도’와 같이 제2어간 ‘깊어-’ 뒤에 ‘-도’가 결합하며 보조동사 ‘버리다’는 ‘잡아 버렸다’와 같이 제2어간 ‘잡아’ 뒤에 쓰인다고 한다. 또 마주르는 과거시제 어미 ‘-았/었-’을 제2어간 형성 형태소 ‘아/어’와 ‘-쓰-’의 결합으로 기술하였다.<sup>36)</sup>

마주르보다 앞서서는 홀로도비치도 한국어의 어간 유형을 다루었다. 홀로도

34) ‘∅, 으, 아/어/여’는 어기설에서 흔히 어간 형성 모음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마주르의 어간 유형에는 ‘∅, 아/어/여’ 외에 ‘지’도 설정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 아/어/여, 지’를 어간 형성 형태소라고 명명하겠다.

35) Мазур, Ю.Н., 앞의 책, 2001, C.116.

36) 『한국어』에서는 ‘르, 브, 드, 르, 스’ 등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들의 어간을 언급하고 있다. ‘르’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아/어’와 결합하여 제2어간을 형성할 때, 어간의 첫음절과 모음조화 접사 사이에 긴 ‘르’(долгий ‘л’)이 나타난다고 한다. 즉 어간 첫음절의 종성에 ‘르’, 두 번째 음절의 초성에 ‘르’가 첨가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모르다 > 몰라; 푸르다 > 풀러’와 같다. ‘답다’와 같이 어간 말을 ‘브’가 ‘르’로 교체되는 경우, 제1어간은 교체된 ‘더우-’와 교체되지 않은 ‘답-’과 같은 두 가지 형식을 가지고 제2어간은 교체된 ‘더워-’ 한 가지 형식만 가진다. 다시 말하자면 ‘답다’의 제1어간은 ‘답-’과 ‘더우-’이며 제2어간은 ‘더워-’이다. ‘드-르; 르-∅; 스-∅’ 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1어간만 두 가지 형식을 가진다. ‘묻다; 알다; 짓다’의 제1어간은 각각 ‘묻-; 알-’, ‘알-; 아-’, ‘짓-; 지-’인 것이다. Мазур, Ю.Н., 앞의 책, 1960, C.62.

비치(1954:39-41)의 어간 유형은 어근/어기에 어간 형성 모음 ‘∅, 으, 아/어’가 결합하면 제1, 제2, 제3어간이 된다.<sup>37)</sup> 그러나 마주르의 어간 유형에는 ‘으’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주르는 『한국어』에서 홀로도비치의 제2어간 ‘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마주르(1960:61)은 ‘으’가 고대 한국어에서 어근의 일부였다면 현대 한국어에서는 어근의 일부가 아니며 연결형태소의 역할을 하는 연결모음(соединительный гласный)으로 보아 어간 유형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으’는 자음 ‘ㅁ, ㄴ, ㄹ, ㅅ, ㅂ’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결합한다고 한다.<sup>38)</sup> 이와 같은 설명을 보았을 때, 마주르는 ‘으’를 ‘-면, -나, -세’ 등의 어미 앞에 결합하는 ‘-으면, -으나, -으세’와 같은 매개모음으로 본 것이 아닌가 싶다. 마주르의 제1어간과 제2어간은 각각 홀로도비치(1954)의 제1어간, 제3어간과 대응된다. 이로 보아 마주르는 홀로도비치의 어간 유형을 참고한 것이 분명하다. 정리하자면 어간 유형에 대한 마주르의 설정은 『한국어』에서부터 『한국어 문법』까지 이어졌는바, 홀로도비치가 러시아의 한국어학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도 짐작할 수 있겠다.

한편, 마주르는 『한국어 문법』에 와서 제3어간을 설정하였다. 이 제3어간은 용언의 어근과 어미 ‘-지’가 결합하여 형성된다고 한다. 주로 ‘않다, 못하다, 말다’와 같은 보조동사가 제3어간 뒤에 결합하여 용언의 부정형과 금지형을 형성한다고 한다. 하지만 마주르는 ‘-지’를 제3어간 형성 형태소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버리다, 내다, 있다’ 등 보조용언들이 제2어간 뒤에 결합하듯이 ‘않다, 못하다, 말다’가 ‘-지’와 결합한 제3어간 뒤에 결합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지’를 제3어간 형성 형태소로 보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일본의 어기 설이나 서양인의 용언 활용의 기술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기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이 ‘-지’를 부정사(инфинитив, 不定詞)로 보고 있다.

37) 김태우, 앞의 논문, 279쪽.

38) Мазур, Ю.Н., 앞의 책, 1960, С.61.

## (2) 인칭

『한국어 문법』의 154쪽에 있는 각주에 따르면 미주르의 원고와 이전에 출판된 저서에는 존칭 형태(гонорифическая форма)라는 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목차에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이 책의 편집자인 콘체비치)가 새로 작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존칭 형태에서 다루는 인칭 관련 내용은 홀로도비치(1954:117-119)에서의 인칭(лицо)과 비슷하다.

『한국어 문법』에서는 “한국어에는 러시아어의 인칭 개념을 나타내는 요소가 없다. 하지만 한국어에는 인칭 범주와 비슷한 문법 형태가 있다.”고 한다.<sup>39)</sup> 여기에는 용언의 존칭 형태 ‘-시-’가 포함된다. ‘-시-’를 화자 자신에게는 사용할 수 없고 주체(2인칭 또는 3인칭)의 지위를 높여주고 존경을 표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와 더불어 ‘씨’, ‘-님’과 같은 요소가 사용되고 또 고대한국어(старый корейский язык)에서 존칭을 나타내는 ‘-읍-’도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고 한다. 이 ‘-읍-’은 현재 ‘주시읍소서!’, ‘악에서 구하읍소서!’처럼 기도문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어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수행할 때 ‘주다(드리다)’를 사용한다고 한 것도 홀로도비치(1954)의 내용과 같다. ‘주다’는 모든 인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드리다’는 1인칭을 제외한 상사 등 존경받을 대상에 쓰인다.<sup>40)</sup>

## (3) 상과 동작상

『한국어』에서는 한국어의 상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고 말다, -아/어 버리다’ 등 한국어의 보조용언을 상 범주(категория вида)에서 다루고 있다. 한국어의 상에는 종결상(завершенный вид), 지속상(длительный вид), 반복상(многократный вид) 3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종결상과 지속상의 형태는 의미동사(주동사)의 제2어간 혹은 부동사어미의 결합으로 형

39) 홀로도비치(1954:117)를 인용하였다고 각주에서 밝히고 있다.

40) Мазур, Ю.Н., 앞의 책, 2001, С.173.

성되는데 종결상에는 ‘-고 말다, -아/어 버리다, -아/어 내다, -아/어 놓다, -아/어 두다, -아/어 가지고’가 제시되어 있고 지속상에는 ‘-고 있다, -아/어 있다, -아/어 가다, -아/어 오다’가 제시되어 있으며 반복상에는 접미사 ‘-곤’과 보조동사 ‘하다’의 결합인 ‘-곤 하다’가 제시되어 있다.

『한국어 문법』에 와서는 한국어에 문법범주로서의 상도 존재하고, 동작상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동사의 문법적 상 형태(видовые формы)에는 지속상(континуатив), 종결상(терминатив), 의지상(волитив), 반복상(итератив), 중지상(цессатив), 원망상(оптатив) 6가지가 있다. 동작상 형태(аспектуальные формы)는 의미적으로 다양한 뉘앙스를 전달한다.<sup>41)</sup> 동작상 형태는 의미동사(주동사)의 종속 부동사형(‘-아/어/여’)과 보조동사가 결합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동작상 형태에는 행위의 지속성(длительность), 강도성(интенсивность), 결과성(результативность), 목적성(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сть), 시도(испытательность), 되는 과정(процесс становления), 강도성(интенсивность), 불완전한 명령(недостаточный императив) 등 8가지가 있다. 『한국어 문법』에서 제시한 상과 동작상 형태의 분류와 목록은 아래 표와 같다.

〈표 6〉 마주르의 『한국어 문법』에서 제시한 상과 동작상 형태의 분류와 목록

| 상 형태 |                      | 동작상 형태 |   |
|------|----------------------|--------|---|
| 지속상  | -고 있다; -고 계시다        | 지속성    | 있다, 오다, 가다                                      |
| 종결상  | -고 말다                | 강도성    | 대다, 들다, 마지않다, 치다, 빠지다, 쌓다                       |
| 의지상  | -고 싶다                | 결과성    | 버리다, 내다, 내다, 놓다, 넣다, 두다, 먹다, 치우다, 빠지다, 나서다, 가지고 |
| 반복상  | -곤 하다 <sup>42)</sup> | 목적성    | 주다, 드리다, 바치다                                    |
| 중지상  | -고 나서; -고 나니; -고 난   | 시도     | 보다  |

41) 홍택규, 『Ю.Н. Мазур,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еоретический курс(한국어 문법, 이론과정.)』, Москва: Муравей-Гай д, 2001, 330Рр., 『형태론』 6(1), 2004, 200~201쪽.

42) 두 문법서에서 ‘-곤 하다’의 ‘-곤’을 ‘-군(кун)’으로 전사하였다.

| 원망상 | -고 지고(고어형) | 되는 과정   | 지다, 들다            |
|-----|------------|---------|-------------------|
| -   |            | 강도성     | 뜨리다, 치다, 쌓다, 마지않다 |
|     |            | 불완전한 명령 | 달라, 다오, 다고        |

〈표 6〉을 살펴보면 상 형태는 ‘-고’와 보조용언의 통합구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동작상 형태는 ‘-아/어’와 보조용언의 통합구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주르의 상 형태와 동작상 형태의 분류는 『한국어』보다는 아주 다양해 보이지만 그 기준이 아주 모호하다. 홍택규(2004:201)에서 지적했듯이, ‘-고 있다’는 진행, 지속, 반복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속상으로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또 동작상 형태에는 결과상의 ‘빠지다, 나서다, 가지고’, 목적성의 ‘주다, 드리다, 바치다’, 되는 과정의 ‘지다, 들다’, 불완전한 명령의 ‘달라, 다오, 다고’, 시도의 ‘보다’ 등 상과 관련이 없는 동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행위의 강도성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다.

#### (4) 형동사와 부동사

러시아어에서 형동사(причастие)는 형용사처럼 행위에 따른 사물의 특징, 즉,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고 부동사(деепричастие)는 동사와 마찬가지로 행위를 나타내며, 부사처럼 행위의 특징, 즉,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나타낸다. 그리하여 러시아어에서는 형동사와 부동사를 단어로 보아 독립적인 품사로 설정하기도 한다.<sup>43)</sup> 마주르는 형동사와 부동사를 러시아어처럼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어』와 『한국어 문법』에서 용언의 관형사형에 대해서는 형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용언의 부사형에 대해서는 부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sup>44)</sup>

43) 이희숙 역, 앞의 책, 134~143쪽.

44) 홀로도비치(1954)도 용언의 관형사형과 부사형에 대해 형동사와 부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Холодович, А.А.,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литературы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1954, С.135-178.



미주르는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가 동사와 형용사와 결합할 때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 아래와 같이 동사, 형용사, 연결사(‘이다, 아니다’)에 따른 한국어의 형동사 어미를 제시하고 있다.

〈표 7〉 마주르의 형동사 분류와 의미

|     | 어미    | 『한국어』(1960)                     | 『한국어 문법』(2001) |
|-----|-------|---------------------------------|----------------|
| 동사  | -는    | 현재                              | 현재             |
|     | -ㄴ/은  | 과거                              | 과거 제1형동사       |
|     | -ㄹ/-을 | 미래                              | 미래             |
|     | -던    | 행위의 지속 여부와 관련 없이 발화시 이전에 일어난 행위 | 과거 제2형동사       |
| 형용사 | -ㄴ/은  | 시제와 관계없음                        | panchronic 한정형 |
|     | -ㄹ/을  | 미래                              | 미래             |
|     | -던    | 과거에 나타난 특징의 존재                  | 과거             |
| 연결사 | -ㄴ    | 시제와 관계없음                        | panchronic 한정형 |
|     | -ㄹ    | 미래 혹은 양태적 의미                    | 미래             |
|     | -던    | 발화시 이전의 상태                      | 과거             |

〈표 7〉에서 보듯이 마주르가 제시한 한국어 형동사 중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한국어 문법』에서 동사와 결합하는 어미 ‘-ㄴ/은’과 ‘-던’을 각각 과거 시제 제1형동사와 과거 시제 제2형동사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동사와 결합하는 어미 ‘-던’(과거 시제 제2형동사)은 행동의 존재를 과거와 연관시킴과 동시에 행동의 변화를 지시하는 것, 즉 전이적 의미(трансферентивное значение)를 갖는다. 과거 시제 어미 ‘-았/었-’ 또는 대과거의 ‘-았었-’과 함께 쓰일 수 있다. 시간 의미는 접미사로 표현되며, 어미 ‘-던’은 피수식 명사에 대한 동사의 전이적 의미와 수식적 의존 관계를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된다. 형용사나 연결사 뒤에 쓰이는 ‘-던’은 단순히 과거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미주르의 부동사는 용언 어간에 부사형 전성어미가 결합된 형태를 말하는

데 이 두 문법서에서는 다양한 부류의 전성어미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이 어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룹1은 접속의 ‘-고’, 병렬의 ‘-며’, 목적의 ‘-러’ 등과 같이 하나의 의미에 특정된 어미가 하나만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룹2는 조건의 ‘-면, -거든, -르진대, -던들’, 양보의 ‘-더라도, -르지라도’ 등과 같이 하나의 의미가 여러 어미로 표현되는 것들을 가리킨다.<sup>45)</sup> 『한국어 문법』에서는 그룹으로 나누지 않고 의미에 따라 종속, 대등, 병렬, 조건 등 27가지로 나열하고 거기에 해당 어미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 (5) 부정사

『한국어』에서 마주르는 용언의 명사형에 대해 부정사(инфинитив, 不定詞)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sup>46)</sup> 부정사에는 제1부정사 ‘-ㅁ/-음’, 제2부정사 ‘-기’, 제3부정사 ‘-지’(‘가지 않다’의 ‘-지’)가 포함된다.<sup>47)</sup> 마주르는 이와 같은 분류에 대하여 평양에서 출판된 『조선어문법』(1949)을 참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문법』에 와서는 부정사라는 용어 대신 명사형(субстантив, substantive)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ㅁ/-음’과 ‘-기’는 각각 제 I 명사형과 제 II 명사형에 해당된다. ‘-지’는 명사형에서 제외되고 용언의 제3어간 형성 연결형태소 또는 부정형 전치 형태(форма преднегатива, pre-negative form)로 처리하게 된다.

45) 여기서 제시한 접속, 병렬, 조건, 양보 등 전성어미들의 분류는 마주르의 분류이다.

46) 부정사는 인칭과 수, 시제의 표시가 없는 동사의 활용형으로, 동사의 의미를 인칭과 수, 서법 등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나타내거나 명사적으로 표현하는 동사의 한 형태를 말한다. 부정사로 실현되는 문법범주를 부정법(不定法)이라 하며, 부정법은 동작이나 상태를 관념적으로 표시하고 동사와 명사의 기능을 아울러 담당한다고 한다. 우형식, 『근대 시기 서양인의 한국어 문법 연구』, 역락, 2021, 257~258쪽.

47) 홀로도비치(1954)의 부정사에도 제1부정사 ‘ㅁ’, 제2부정사 ‘기’, 제3 혹은 불완전 부정사 ‘지’가 포함되어 있다. Холодович, A.A., 앞의 책, 1954, C.178-180.

### 3. 결론

지금까지 마주르의 『한국어』와 『한국어 문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굴절어인 러시아어와 교착어인 한국어는 서로 다른 문법구조를 가진 언어들이고 러시아어의 시각에서 한국어를 분석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초기의 서양인 언어학자들이 서구어 문법을 바탕으로 한국어를 기술했듯이 마주르도 러시아인 한국어학자로서 러시아어 문법을 바탕으로 한국어를 바라보고 한국어를 기술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 두 문법서에서 잘 드러나 있다.

마주르가 모스크바 동양학연구소 학생이었던 당시에 사용하였던 한국어 교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홀로도비치 교수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것을 보았을 때, 48) 마주르는 홀로도비치의 한국어 문법 기술을 계승받았을 것이고 또 한국어 문법서를 집필하는 데에 홀로도비치의 『한국어 문법: 제1부 형태론』(1937)과 『한국어 문법 개요』(1954)가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문법서에는 마주르만의 독창적인 기술 방식이 보이기도 한다. 2장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마주르는 한국어의 단어를 기능과 의미에 근거하여 분류하지 않고 굴절어인 러시아어의 분류 방식으로 분류한 것이 특이하다. 먼저 한국어의 단어를 자립성 유무에 따라 품사와 보조어로 나누었다. 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등과 같은 자립성이 있는 것들이 포함되고 보조어에는 후치사, 접속사, 조사, 의존명사 등과 같은 자립성이 없는 보조적인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것들이 포함된다. 한국어의 형용사는 서구어나 만주·통구스어 등 많은 언어의 형용사와는 달리 동사와 같은 활용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마주르는 이와 같은 특징을 잘 인식하여 형용사를 동사와는 별개의 품사로 독립시켰다. 보조어 중에서 후치사와 조사가 언급할 만하다. 미주

48) 폰제비치 위움·김영일 옮김, 『러시아에서의 현대 한국어 연구』, 도서출판 사람, 2000, 7쪽.

르의 후치사는 러시아어 등 서구어의 전치사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설정되었다. 소사는 러시아어 문법에서 개별 단어나 문장 전체에 다양한 양상의 뉘앙스를 더해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보조어이다. 소사의 개념을 보면 한국어의 보조사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마주르가 설정한 한국어 소사에는 부정부사, 비교격조사, 일부 의존명사가 포함되어 있어 한국어의 보조사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 부정소사와 비교소사는 러시아어 문법에서의 부정소사와 비교소사와 일치하다. 행동사 후치 소사에는 현재의 한국어 학교문법에서 의존명사로 분류되는 일부 의존명사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체언과 용언의 문법에 있어서는 러시아어 문법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도 있고 분류와 기준이 모호한 것도 있다. 우선, 격 체계와 관련하여 『한국어』에서는 현재의 한국어 학교문법에서 볼 수 없는 어간격이 설정되어 있다. 이는 러시아어 주격의 형태와 기능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격 체계에 어간격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어의 복수 범주에 대해서는 문법적 복수와 어휘적 복수 등과 같이 다양하게 분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 마주르는 러시아어 문법처럼 행동사와 부동사를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지 않았지만 용언의 관형사형과 부사형에 대해 각각 행동사와 부동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넷째, 상과 동작상의 분류도 지적할 만하다. 이처럼 마주르의 한국어 문법 체계는 러시아어 문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통해 우리는 마주르의 현대 한국어 문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러시아어 원문이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한 필자의 능력 부족함으로 인하여 여기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추후 더 많은 흥미로운 내용들을 소개할 것을 기약한다.

## ■ 참고문헌

- 고영근,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보정판), 태학사, 2007.
- 고영근 · 구분관, 『우리말 문법론』(개정판), 집문당, 2018.
- 김태우, 『A.A. 홀로도비치의 현대한국어 연구 -『한국어 문법: 제1부 형태론』과 『한국어 문법 개요』의 비교 연구』, 『한국학연구』 5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 끈짜비치 엠크 · 김영일 옮김, 『러시아에서의 현대 한국어 연구』, 도서출판 사람, 2000.
- 바바이페바 · 체스노코바 저, 이희숙 역, 『러시아어 문법』, 경진문화사, 2002.
- 우형식, 『근대 시기 서양인의 한국어 문법 연구』, 역락, 2021.
- 유.엔. 마주르, 『러시아와 소련에서의 한국어학과 한국어교육』, 『二重言語學會誌』8, 이종언어학회, 이종언어학회, 1991.
- 이익섭 · 채완, 『국어문법론강의』, 學研社, 1999.
- 임홍수,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품사 대조』, 『국제문화연구』 제1-2집, 2008.
- 조남신 · 박수빈, 『러시아어학 개론』, 한국문화사, 2017.
- 최지영, 『러시아어권 한국어 문법서의 품사 체계와 대역어 양상』, 『노어노문학』 28(1), 한국노어노문학회, 2016 ㄱ.
- \_\_\_\_\_, 『한국어 문법 용어의 러시아어 대역어 사용 양상 연구 - 홀로도비치와 마주르의 문법서를 중심으로-』, 『언어학 연구』 40, 한국중원언어학회, 2016 ㄴ.
- \_\_\_\_\_,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상(相) 문법 표지 비교 연구』, 『인문사회 21』 제8권 제5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 표상용, 『현대 러시아어학 개론』(2판), 신아사, 2019.
- 칼리나, 『유.엔. 마주르(Ю.Н. Мазур)의 생애와 한국어의 품사 체계』, 『한국학연구』 6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 홍택규, 『Ю.Н. Мазур,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Теоретический курс(한국어 문법. 이론 과정.)』, Москва: Муравей -Гай д, 2001, 330Рр., 『형태론』 6(1), 2004.
- 菅野裕臣 譯註, 『蘇聯의 韓國語學』, 『亞細亞研究』 14(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1.
- Дмитриева В.Н., "О днях былых московского корееведения",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Альманах. Выпуск третий*. М.: Муравей, 2003.
- \_\_\_\_\_, "Хан Дык Пон(1906-1995)", Ванин, Ю.В. *Жизнь и труд посвятившие Корею: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еведы 2-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 Сборник статей. Том 1. - Москва: Первое Марта, 2004.
- Дмитриева В.Н. & Концевич Л.Р., "Виктор Антонович Хван(Хван Юндюн)(1916-1969)", Ванин, Ю.В. *Жизнь и труд посвятившие Корею: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еведы 2-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 Сборник статей. Том 1. - Москва: Первое Марта, 2004.
- Ивановна, В.И. & Концевич, Л.Р., "CURRICULUM VITAE Юрия Николаевича Мазура",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орфология.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 М.: Международный центр

- корееведения МГУ -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Муравей -Гай д», 2001.
- Концевич Л.Р., "Иннокентий Иванович Хван(Хван Донмин)(1912-1985)", Ванин, Ю.В. *Жизнь и труд посвятившие Коре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еведы 2-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 Сборник статей . Том 1. - Москва: Первое Марта, 2004.
- \_\_\_\_\_, "Несколько слов об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а также учителях, определивших мой выбор профессии корееведа и повлиявших на мою судьбу",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в прошлом и настоящем. Том 3. Современное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справочное издание. Сост. Т. Симбирцева, Л.Р. Концевич. М.: Первое марта, 2006.
- Мазур, Ю.Н., "Краткий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й словарь*, Под редакцией Пак Чон Сика. Третье издание, исправление и дополненное. Около 30 000 слов. 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и национальных словарей , 1954.
- \_\_\_\_\_,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ерия Языки зарубежного Востока и Африки,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восто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60.
- \_\_\_\_\_,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Морфология.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 Теоретический курс*. М.: Международный центр корееведения МГУ -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Муравей - Гай д», 2001.
- Торкунова, А.В. *Главы из истории московского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Лазаревский институт - Московский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 МГИМО*. Под общ. ред. Академика РАН А.В. Торкунова.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Аспект Пресс», 2014.
- Рамстедт Г.,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Перевод с английского и примечания А.А. Холодовича),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иностр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1951.
- Холодович, А.А.,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литературы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1954.

## Yu.N. Mazur's Study of Present Day Korean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Корейский язык* and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орфология.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

Kalin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e the changes in Korean grammar analysis between the two Korean grammar books which were both written by a Russian Korean scholar Yuri Nikolaevich Mazur. One is *Корейский язык* which was published in 1960 and the other one is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орфология. Словообразование* which was published in 2001. This article also aims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grammar of that time and the present day Korean school grammar.

In these two books, it is characteristic that Mazur classified Korean words into parts of speech and syntactic words based on the word classification standards of Russian which is obviously an inflectional language. The classification of parts of speech of Korean has no significant different between that time and present day Korean school grammar except for *josa*(조사). Syntactic words include postpositions, conjunctions, particles, dependent nouns, classifiers, and auxiliary predicates. Among them, particles include negative adverbs, comparative cases and some dependent nouns. He set up a case like a stem case which has case function in the form of not attaching a case marker. In the combination of the stem of the predicates with endings and the auxiliary predicates, the stem of the predicates are divided into two or three types. In

---

\*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Korean Studies, Inha University

addition, for the adjective and adverbial form of predicates, he used them as participles and converbs. And the term infinitive is used for the nominal form of predicates, which was later changed to the term substantive. Unlike the present day Korean school grammar, these two Korean grammar books can be said to show the characteristics of Russian Korean language scholars' Korean grammar analysis.

**Key words** : Korean, Word, Particle, Participle, Converb, Infinitive